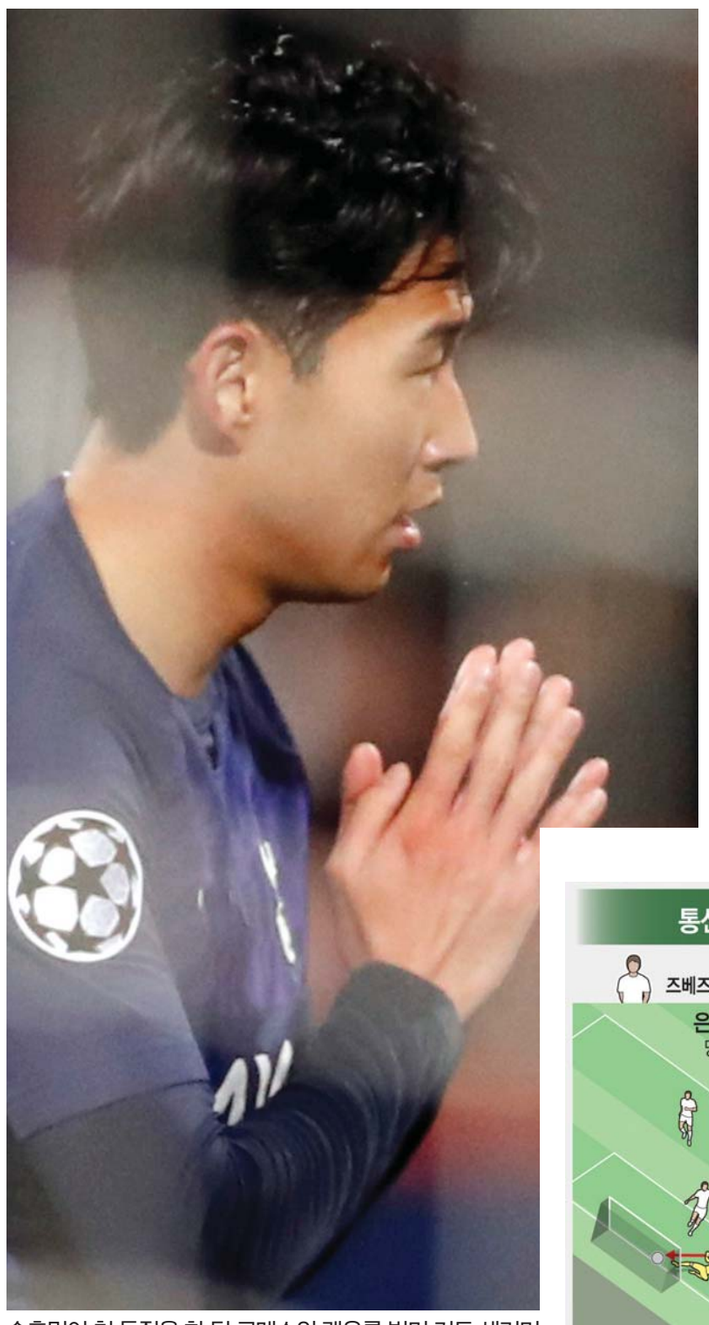
‘차붐’ 전설 넘고 사과 세리머니… 참, 멋지다 손흥민

백태클 트라우마 극복 챔스리그 즈베즈다전 멀티골
한국인 유럽축구 123골…차범근 나이보다 10년 앞서



손흥민이 첫 득점을 한 뒤 고메스의 쾌유를 빌며 기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27·토트넘)이 ‘차붐’을 넘어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손흥민은 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를 상대로 개인 통산 122호, 123호 골을 잇달아 터뜨렸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을 넘어섰다. 앞선 기록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한 차범근(66)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372경기(1978~1989년)에 걸쳐 기록한 통산 121골. 2010년 유럽프로축구에 데뷔한 손흥민은 361경기 만에 차 전 감독의 기록을 경신했다.

손흥민의 기록 경신 시점이 차 전 감독보다 한참 이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차 전 감독이 121골을 남긴 것은 은퇴를 앞둔 36세 때다. 손흥민은 그보다 10년가량 앞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2010~2015년 분데스리가에서 49골을 넣은 손흥민은 2015-2016시즌 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 지금까지 74골을 넣었다.

특히 2016-2017년 시즌부터 3년 동안 59골을 넣으며 공격수로서 두각을 보였다.

역사적인 골이 터진 순간, 손흥민은 평소의 화려한 세리머니 없이 양손을 모아 사과하는 포즈를 취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백태클로 부상을 입힌 안드레 고메스를 향한 사과로 해석된다.

당시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던 손흥민은 토트넘의 항소로 징계가 철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이 이번 즈베즈다와의 경기 출전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로 나섰다.

이날 경기는 첫 골부터 극적인 난전 끝에 나오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전반 33분 해리 케인의 슛이 골대에 맞고 흘러나오자 손흥민이 받아 터닝슛을 날렸으나 수비수에 맞았다.

손흥민은 이어진 케인의 슈팅을 무릎으로 밀어 넣으며 재차 골문을 열고자 했지만 이번엔 골포스트를 때리며 튕겨 나왔다. 그리고 틈새를 파고든 로셀소가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1-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 12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또 후반 16분 대니 로즈가 밀어준 공을 골 지역 오른쪽에서 깔끔하게 넣으며 승세를 이어갔다.

토트넘은 후반 40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추가 골과 함께 4-0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경기로 토트넘은 2승 1무 1패(승점 7)를 기록하며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이어 조 2위로 자리 잡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kwangju.co.kr

“방심은 NO” … 기록과 유종의 미 두 토끼 잡는다

광주 FC 내일 대전과 최종전
펠리페 득점왕 사수 ‘주목’

광주FC의 펠리페(오른쪽)가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티즌과의 2019시즌 최종전에서 득점왕에 도전한다. 사진은 펠리페가 6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헤더를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챔피언’ 광주FC가 시즌 최종전 승리와 함께 2년 연속 득점왕 배출을 노린다.

광주는 9일 오후 3시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가서 대전시티즌과 2019K리그2 3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019시즌의 긴 여정을 끝내는 작별무대다.

광주는 대전과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하고, K리그1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광주는 앞선 33라운드 안양전 4-0 승리와 함께 부산아이파크의 추격을 뿌리치고 K리그2 우승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전남드래곤즈와의 홈 폐막전이 끝난 뒤 우승 시상식을 갖고 기쁨의 순간도 만끽했다.

올 시즌은 기록의 해였다. 광주는 K리그2 최다 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최다 승 및 최다 승점(35라운드 현재 21승·73점) 등 수 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만들었다.

많은 순간이 새로 쓰였지만 광주의 기록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종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광주는 펠리페와 이으뜸의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펠리페는 올 시즌 27경기에 나와 19골을 터트리면서 득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수원FC의 치솜이 18득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 만큼 ‘득점왕’ 싸움의 승자는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대로 펠리페가 1위 자리를 고수하게 될 경우 광주는 2016년 정조국(현 강원FC), 지난 시즌 나상호(현 FC도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세 번째 득점왕을 배출하게 된다. 또 펠리페가 한 골을 추가할 경우 정조국이 가지고 있는 광주의 개인 한 시즌 최다 득점(20골) 기록과도 동률을 이루게 된다.

펠리페는 34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으며 앞선 전남전에 결정했지만, 빠른 회복세 속에 득점왕과 기록을 향한 강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으뜸의 왼발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이으뜸은 올 시즌 프리킥 상황에서 5차례나 골대를 가르면서 6골을 넣은 안드레(2000년), 뽀뽀(2006년)에 이어 프리킥 직접 득점 2위에 올라있다. 수비수로는 최다, 2001년 고종수(5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기분 좋은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우승을 이끈 주축 선수들은 물론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선수들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의 전력은 탄탄하다.

반면 지난 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광주에 패배를 안겨줬던 대전은 올 시즌 부진 끝에 9위가 확정됐다.

지난 시즌 대전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시즌을 마감했던 광주가 ‘챔피언’의 면모를 보이며 승리와 기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슐마토프, 우즈벡 국대 차출

광주FC의 ‘철벽 수비수’ 아슐마토프가 우즈베키스탄 축구국가대표로 뛴다.

아슐마토프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 나설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다. 지난 10월 이후 연속 대표팀 발탁이다.

전남드래곤즈와의 홈폐막전이 끝난 뒤 지난 4일 귀국한 아슐마토프는 오는 9일 키르기스스탄과의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어 14일과 19일에는 각각 월드컵 2차 예선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아슐마토프는 각급 연령대 대표팀을 거쳐 지난 2017년 그루지아전을 통해 A매치에 데뷔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5경기를 소화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팀의 8강에 기여한 그는 박항서 감독이 지휘한 베트남과의 AFC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선제골을 기록,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한편 아슐마토프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볼 처리 능력, 강력한 헤더가 강점으로 꼽힌다. 스피드와 정확한 롱패스를 이용한 빌드업 능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지난 시즌 뒷심 부족으로 고전했던 광주는 올 시즌 안정된 수비와 탄탄한 대인마크를 과시한 아슐마토프의 활약 속에 리그 최소실점(35라운드 현재 28실점)으로 K리그2 우승을 이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17 월드컵’ 8강 상대는 멕시코

일본 0-2 패…한국, 11일 오전 8시 8강전

일본이 7일 열린 멕시코와 U-17 월드컵 16강전에서 0-2로 완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전날 앙골라를 꺾고 8강에 선착한 한국은 11일 오전 8시 멕시코와 4강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됐다.

전반을 득점 없이 비긴 멕시코는 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볼을 에우게니오 피수토가 골대 정면에서 차 넣었고, 후반 29분에는 산티아고 무뇨스가 일본 수비를 뚫고 추가골을 넣어 승리를 매조졌다.

일본을 2-0으로 물리친 멕시코는 한국의 8강 상대로 결정됐다.

한국이 U-17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멕시코를 만나는 것은 2009년 대회 16강 대결 이후 10년 만이다.

2009년 대회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16강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한 기분 좋은 추억이 있다.

한국의 U-17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은 8강(1987·2009년)이다.

1987년 대회는 출전국이 16개국밖에 되지 않아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바로 8강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09년 대회에서 기록됐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을 때 만났던 멕시코와 이번에는 4강 진출의 고비에서 만나게 돼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